

WBC참가 한국 내야진 일본 '압도'



▲ WBC 한국 대표팀의 최지민, 김하성, 토미 에드먼(왼쪽부터), 사진=sportskeeda.com

오는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는 자국리그 선수들보다 해외파들이 승부의 키를 쥐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엔 최지민, 김하성, 토미 에드먼 등 3명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포함됐다. 최지민은 소속 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승인이 있어야 합류할 수 있어 유동적이다.

일본 대표 팀에는 오타니 쇼헤이, 다르빗슈유, 스즈키 세이야, 라스 닷바, 요시다 마사타카 등 5명의 메이저리거가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3명(2명이 될 수도 있음)인데 비해 일본은 5명이다. 다만, 한국팀은 김광현, 양현종, 박병호, 김현수 등 메이저리거를 경험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포지션별 우열에서는 외야는 일본이, 내야는 한국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야수로는 메이저리거 스즈키, 요시다, 닷바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 현 메이저리거가 없다.

내야의 경우 한국은 최지민, 김하성, 에드먼이 포진돼 있다. 일본은 현 메이저리거가 없다.

투수진의 경우 일본은 메이저리거에서도 슈퍼스타인 오타니와 다르빗슈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제로'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경험자다.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판 승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숙명의 한일전은 3월 10일 열린다.

손흥민, PL '약발' 득점 공동 1위

손흥민(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PL) '약발(weak foot)' 득점 1위에 올랐다.

13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전날 공식 SNS에 "약발? 문제없어!(Weak foot? No problem!)"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자신이 잘 쓰는 발이 아닌 반대쪽 발(약발)로 가장 많은 득점을 넣은 5명 선수들의 이름이 나열됐다.

토트넘이 자랑하는 일명 '손케 듀오' 멤버인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공동 1위에 올랐다.

주발이 오른발인 손흥민과 케인 모두 지금까지 리그에서 왼발로 무려 40골을 터뜨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약발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이 됐다.



▲ 손흥민과 케인이 '약한 발'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사진=twitter(premierleague)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로빈 판페르시가 39골을 기록하면서 1골 차이로 3위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현역 은퇴한 선수라 손케 듀오의 기록을 경신할 수 없다.

4위는 현재 세리에A 인테르밀란에서 뛰고 있는 로베루 투카쿠(34골), 5위는 레스터 시티 레전드 제이미 바디(32골)가 차지했다. 1987년생인 바디는 곧 현역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손흥민과 케인이 작성한 '약발' 기록을 깰 수 있는 경쟁자들이 이미 은퇴했거나 조만간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어서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가 '약발' 단독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LPGA 신인왕 1순위 유해란 "우승보다 적응 우선"

지난해 LPGA 투어 켈리파잉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한 유해란(22)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비거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유해란은 전날 서울 서초구 가빛섬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의 새 카본우드 출시 행사에 참석해 "켈리파잉스쿨을 뛰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비거리를 확실히 늘려야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비거리보다 정확도 위주로 경기를 하느라 파 5홀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공을 보낸 뒤 잘라 가는 작전을 구사했는데, 미국에서 보니 다른 선수들이 너무 쉽게 투온을 했다. LPGA에서는 거리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2022년 LPGA 투어 켈리파잉스쿨 수석으로 통과한 유해란. 사진=테일러메이드

켈리파잉스쿨 수석은 LPGA 투어의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신인왕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유해란은 또 켈리파잉 시리즈에서 수석을 했지만 올 시즌 목표는 대회 우승보다는 LPGA 적응이 먼저라고 말했다.

유해란은 "우승을 기록하면 완벽한 첫 시즌이 되겠지만 인터뷰 등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아무

래도 낮은 곳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 적응을 빨리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잘 적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LPGA 진출을 앞둔 심정을 전했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Reverse Mortgage • Line of Credit - Low Cost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No Income Program - Credit 640부터, 20% down 가능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재융자
-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